

# '집사느라' 가계 여윌돈 4년 만에 최저

### "가계의 운영자금 감소... 신규주택구입 크게 늘면서 금융부채 증가·금융자산 감소가 원인"

지난해 가계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금융거래를 통한 여윌돈 규모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거래를 통한 순자금운용(net lending)은 70조5000억원으로 전년(94조2000억원)보다 23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순자금운용은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금융자산에 투자한 '자금운용액'에서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조달액'을 뺀 수치다.

순자금운용 규모가 감소한 것은 가계의 금융 자산에 비해 금융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가계의 순자금운용은 2011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자금운용 규모(70조5000억원)는

2012년(69조5000억원)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가계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143조원으로 전년(128조7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금융기관 단기차입금(18조원→26조4000억원)과 장기차입금(108조3000억원→116조원) 규모가 모두 확대됐다.

단기차입금의 경우 예금취급기관에서 조달한 규모는 감소(8조2000억원→7조7000억원)했지만 기타금융기관(9조8000억원→18조6000억원)은 크게 증가했다.

반대로 장기차입금은 예금취급기관(68조3000억원→68조6000억원)에서 크게 늘었고 기타금융기관(39조9000억원→17조4000억원)에서는 감소했다.

가계가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자금 운용액은 2015년 223조원에서 2016년 213조5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이나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97조1000억원→109조5000억원)은 크게 늘었다.

하지만 보험 및 연금준비금(89조8000억원→87조7000억원), 채권(7조1000억원→2조원), 자본증권 및 투자펀드(14조8000억원→6조1000억원) 등에 대한 투자는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가계의 금융거래를 통한 여윌돈이 크게 감소한 것은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늘렸기 때문이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건물에 대한 투자는 81조8000억원으로 전년(67조원)보다 14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박동준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지난해 가계의 운영자금 규모가 감소한 것은 신규주택구입이 크게 늘면서 금융원천 부채는 증가하고 금융자산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자산에 비해 금융부채가 크게 늘면서 가계의 건전성도 악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잔액은 1565조8000억원으로 전년(1423조1000억원) 대비 142조7000억원(10.03%) 늘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잔액은 2015년 말 3181조8000억원에서 2016년 말 3389조2000억원으로 207조4000억원(6.52%) 늘었지만 부채에 비해 증가율은 낮았다.

이에 따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규모는 2015년 2.24배에서 2.16배로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2015년에는 가계의 순저축이 21조4000억원이나 늘었는데 2016년에는 2조5000억원 밖에 늘지 않았다"며 "부채에 비해 금융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경기불안' 저축률 17년 만 최고

### 작년 총저축률 35.8% 전년 대비 0.2%p 올라

소비성향 위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작년 총저축률은 35.8%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외환위기 여파가 작용한 1999년(35.9%)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총저축률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안 쓰고 남은 돈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D)에서 최종소비지출을 뺀 값(총저축액)을 GNDD로 나눠 산출한다.

연도별로는 1988년 41.7%를 고점으로 내리막을 걸었다. 2000년 이후에는 30% 초반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밑돌았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전년에 비해 4.5% 늘어난 반면 최종소비지출은 이보다 낮은 4.1% 증가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소비지출 비중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총저축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을 더한 민간총저축률은 28.0%, 정부총저축률은 7.8%로 잠정 집계됐다.

가계의 총저축률은 8.3%로 전년과 유사했고 기업은 19.7%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총저축률은 2011년(8.0%)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문제는 민간의 소득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데 있다. 개인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보니 소비나 투자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의 총처분가능소득은 37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어난 반면 가계는 929조6000억원, 기업은 326조2000억원으로 각각 4.0%와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총처분가능소득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2.0%에서 2016년 23.1%로 확대됐다. 가계 비중은 57.2%에서 56.9%로 줄었고 기업 비중은 20.8%에서 20.0%로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37조4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4.7% 늘었다"며 "최종소비지출은 이보다 낮은 4.1% 증가해 아직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선테마주 아냐" 상장사 올해 26곳

### "기업 신뢰·이미지 악화 우려 양심선언"... 3월에만 18곳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가 기세를 부리는 가운데 기업들의 양심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상장사 총 26곳이 특정 후보나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에 나섰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사이버 경보'를 통해 이상 징후를 통보받고 정치·정책 관련 풍문을 부인한 공시 종목은 지난 28일 현재까지 총 26개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보면 올 1월 종목 1개가 정치 관련 이슈와의 관련성을 해명했고, 2월엔 종목 7개, 3월엔 18 종목이 동참했다.

거래소가 작년 6월부터 풍문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경보제를 실시했고, '최순실 사태'로 작년 4분기부터 사실상 대선정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상장사들의 양심선언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정책 관련성을 해명한 종목을 보면 아스트라 WB, 신신제약, 하나머스트5호스펙, 하나머스트4호스펙, 하나머스트3호스펙, 이화공업 등 14 종목이 문재인 대선주자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안철수 테마주에서는 다름멀티미디어, 써니전자 등 2 종목이 양심선언을 했다. 안희정 테마주에서는 국일

제지, SG총방, 자연과환경, 원풍, 엘디티, KD건설 등 6 종목이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또 유승민 테마주 2종목(세우글로벌, 대신정보통신), 이재명 테마주 1종목(오리엔트정공), 가상현실 정책 테마주 1종목(한국규빅) 등이 있다.

특히 엘디티와 SG총방은 올 2월에 이어 지난 14일에 안희정 총남자사와의 관련성을 재차 부인했다.

또 이들 정치·정책 26개 테마주들은 해명 공시를 한 후 주가 등락을 평균이 -4.6%로 집계됐다. 이 중 대다수인 18곳의 주가가 빠졌고, 8곳은 상승했다. 특히 안희정 테마주인 엘디티는 43.2%까지 떨어졌다.

사이버 경보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닌 만큼 가만히 있으면 대선 바람에 주가를 손쉽게 띄울 수 있는 데도 굳이 주가 급락을 감수하고 적극 해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치 이슈에 휘둘리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 투자에서 개인은 심중팔구 손해를 본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안티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지엠, 롯데렌터카와 볼트EV 공급 협약

한국지엠 웨보레는 지난 28일 롯데렌터카와 전기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웨보레는 볼트(Bolt) EV를 롯데렌터카에 공급하게 됐다. 회사 측은 렌터카와 카셰어링을 통해 고객들의 볼트 EV 경험을 확대한다는 예정이다.

또 양사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업 확대를 위해 세부적인 공동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임스 김 사장은 "웨보레는 주행거리연장 전기차 볼트(Volt)와 함께 볼트(Bolt) EV를 필두로 국내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롯데렌터카와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렌트와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볼트 EV는 미국과 한국의 환경정도로부터 383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정받았다.

일만 고객 구입 가격은 올해 책정된 국고 보조금 1400만원과 지역별로 최대 1200만원까지 주어지는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포함해 2000만원대에 책정됐다.

이달 30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서울모터쇼에서 볼트 EV 공개행사와 시승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데일 살리번 영업·A/S·마케팅부문 부사장, 백범수 국내영업본부 전무 등을 비롯해 표현명 롯데렌탈 사장, 남승현 상무, 김좌일 그린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서울모터쇼' 국제교류 사업 확대 전망

### 멕시코 5개 주정부 등 참가

'오는 31일 개막을 앞둔 2017서울모터쇼에 해외 주정부와 주요 인사가 찾는 등 자동차산업에 관한 국제 교류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는 29일 이번 모터쇼에서 독일의 10개 부품업체가 '독일 부품관'을 꾸려 서울모터쇼에 3회 연속 참가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부품업체 7개사는 처음 서울모터쇼에 참가한다. 특히 기아차 생산 공장이 있는 '누에보레온 주'를 비롯해 코렐라 주 등 총 5개 멕시코 주정부에서도 참가한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에 멕시코 주정부의 투자여건 정보를 소개하고 한국과 멕시코 자동차부품업체간 국제 사업 협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4일 '멕시코 자동차산업 세미나'도 개최한다.

더불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아산공

장, 한국지엠의 부평공장도 찾을 계획이다.

내달 5일에는 콜롬비아수출관공해의 투자진흥청 주최로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업체의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는 '콜롬비아 자동차산업 비즈니스 세미나'가 열린다.

6일에는 이스라엘 6개사가 참가해 양국 간 산업협력을 촉진하는 '미래 자동차·이스라엘 첨단자동차기술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해외 자동차산업의 주요 인사도 이번 모터쇼를 찾는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 일본자동차산업협회, 스웨덴자동차산업협회, 멕시코자동차협회, 프랑스국제전시협회 임원이 행사장을 방문한다.

이밖에 오는 31일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주한 미국·유럽연합대표부·러시아·인도·벨기에 등 14개국 대사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외국경제단체 대표가 방문할 계획이다.

구독신청 288-9700

##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